

## 역사 토론문

### 「3-9세기 동아시아 지식의 교류와 갖은자의 사용」

윤용구 / 경북대학교

戴卫红 선생님, 발표 잘 들었습니다. 선생님의 발표는 一、二、三...같은 일반 숫자(小寫數字)가 아니라 壹、貳、參...同音多筆(多劃)으로 쓴 大寫數字의 사용추이를 개관하고, 한국·일본 등에서 사용된 大寫數字 사례를 통하여 數字文化의 전파와 그 의미를 제시한 글입니다.

大寫數字는 이미 선진시기부터 사용되었으며, 진한시기를 거쳐 魏晉時代에 이르러 완비되었으며, 唐代에 와서 보편화되었음을 출토 簡牘과 투르판 출토문서를 통하여 논증하였습니다. 아울러 한국과 일본 목간 가운데 大寫數字의 사용 사례를 찾아내 그 역사적 의미를 분명히 했습니다.

발표자는 中国社会科学院 魏晉南北朝史研究室主任으로 위진남북조시대사 연구의重鎮學者입니다. 2009년「北魏考课制度研究」(中国社会科学院博士)를 시작으로 漢唐에 이르는 폭넓은 연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. 아울러 한국의 성균관대학 방문학자(2012~2013), 경북대학 인문학술원 교수(2019~2021)의 경험을 통해 한국출토 木簡에 대한 연구 저서를 내신 바도 있습니다.(『韩国木简研究』广西师范大学出版社,2017年)

최근 들어 발표자는 이른바 ‘九九表 木簡’에 대해서도 중국내 출토와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東아시아 數字文化의 전개와 교류상을 검토한 바 있는데, 이번에 大寫數字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향후 연구가 더욱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. 선생님께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.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.

첫째, 선진시기부터 사용된 大寫數字는 數値의‘偽造防止’이라는 효용성에도 불구하고, 이것이 唐代 이후가 되어서야 보편화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?

둘째, 大寫數字가 표기된 阿斯塔那(Āsitānà)316號墓(60TAM316:08/1)출토문서의 연대를 당초 高昌 時期末인 麹氏王國時期(501~640年)로 보다가, 최근 들어 十六國(317~439年)高昌郡時期로 변경해 보려는(王素, 2009 ; 吕冠军, 2019) 이유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궁금합니다.

셋째, ‘大寫數字’는 현대 중국에서 사용되는 표기법이고, 전근대에는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궁금합니다. 현대 한국에서는 ‘갓은 자’로 쓰고 있으며, 전근대에는 ‘多筆字’로 쓴 사례가 있습니다.(李裕元(1814~1888)撰, 『林下筆記』卷34, 「數目用多筆字」). ‘갓은 자’의 ‘갓은’은 ‘많다’는 의미이며, 多筆(劃)數字와 같다고 하겠습니다. 물론 李裕元의 ‘多筆字’는 趙翼 『陔余叢考』(卷30, 「數目用多筆字」)의 說法을 借用하고, 朝鮮의 사용실태를 덧붙인데 불과합니다. (2022.9.12.)

